

2026년 7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

'26. 7. / 쿠알라룸푸르지사

○ 비엠티, 베트남-말레이시아 노선 증편 및 할인 프로모션 실시

- 베트남의 저비용항공사(LCC) 비엠티(Vietjet)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7월 3일부터 쿠알라룸푸르-호치민 노선을 하루 2회(왕복) 운항으로 증편
- 비엠티에 따르면 이번 증편은 베트남 국내선 공급 확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노선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다낭, 나트랑, 푸꾸옥, 후에, 꾸이넌, 동허이 등을 연결하는 주요 국내 노선에도 추가 항공편 투입
- 성수기 동안 비엠티는 하루 5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880만 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
- 또한 쿠알라룸푸르-호치민, 쿠알라룸푸르-하노이 노선의 디럭스 및 스카이보스 운임에 대해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20% 할인 프로모션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진행

○ 에어아시아무브, 4개 항공사와 추가 파트너십 체결

- 에어아시아 계열의 OTA인 에어아시아무브(AirAsia Move)가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및 중국으로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만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 핏츠에어, 하이난항공 등 4개의 신규 항공사와 직항 제휴를 맺으며 글로벌 항공사 네트워크를 확대
- 이번 네트워크 확대는 항공권 중심 온라인 여행사(OTA)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여행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오만항공은 오만과 자사 국제선 네트워크 전역으로의 연결성을 제공하게 되며, 우즈베키스탄항공은 타슈켄트 허브를 통해 중앙아시아 노선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
- 핏츠에어는 쿠알라룸푸르-콜롬보 노선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호르, 두바이, 다카, 첸나이 등으로 이어지는 환승 노선을 제공하며, 하이난항공은 하이커우, 베이징, 충칭, 선전, 시안 등 중국 주요 도시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목적지로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
- 이번 신규 제휴를 통해 에어아시아 무브는 현재 전 세계 79개 항공사와 직접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인 공급업체를 통해 약 700개 추가 항공사의 항공편도 제공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항공, 유가 상승 대응으로 항공권 가격 20~30% 올렸다 발표

- 말레이시아항공그룹 CEO는 한 기업 방문 행사에서 통상 연료비는 항공사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나 중동 갈등 이후 50%까지 상승하였으며, 헤지 전략을 시행해 변동 영향의 36% 정도를 완화하였다고 설명
- 또한 다른 항공사들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항공권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추세에 맞춰 항공권 운임을 약 20~30% 인상했다고 발언

○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MH370 기체 수색 계약 연장

- 영국에 본사를 둔 해양탐사 기업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가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의 잔해를 찾기 위한 남인도양 수중 수색을 추가로 12개월 연장하였으며, 말레이시아정부는 오션 인피니티가 MH370 잔해를 성공적으로 발견할 경우 미화 7,000만 달러(약 952억원)를 지급하지만 만약 항공기 잔해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급 금액이 없음
-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은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2014년 3월 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되었음

○ 말레이시아-베트남, 관광 및 문화 분야 상호 협력 의지 밝혀

- 관광부장관은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제13차 관광 장관 회의에서 베트남 관광부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관광 및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특히 의료 관광과 할랄 관광 개발 협력도 포함된다고 밝힘
- 그 일환으로 베트남측은 말레이시아를 올해 및 내년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여러 주요 행사에 초청했다고 공개함. 해당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프로그램 ▲하노이 베트남 국제여행박람회(VITM) ▲문화 및 창의 산업 고위급 대화 ▲국제 문화 페스티벌 등이 포함

○ 바틱항공, 쿠알라룸푸르-시드니 직항 항공편 신규 개설

- 바틱항공은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캠페인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에 호응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시드니 직항 노선을 새롭게 개설, 첫 항공편이 7.1. 시드니에 도착했다고 밝힘
- 이번 직항 노선은 기존 발리를 경유하는 쿠알라룸푸르-시드니 노선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행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항공편 선택권과 공급 좌석, 그리고 보다 유연

한 운항 일정을 제공

-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따르면 호주는 말레이시아의 핵심 장거리 관광시장 가운데 하나로, 말레이시아는 2026년 1~5월 동안 호주인 관광객 21만3,378명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수치

○ 페낭주, 의료관광 유치 대상 시장 중동 확대 노력

- 페낭주는 2025년 11억 링깃(약 4,180억 원) 이상의 의료관광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 의료관광 시장을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중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동을 새로운 의료관광 핵심 시장으로 적극 개척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카타르항공의 도하-페낭 직항 노선이 겨울 운항 일정에 맞춰 재개되면서 국제 항공 연결성이 강화되고,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지역 환자 유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 페낭은 이번 노선 재개가 기존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주말 카타르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선웨이 메디컬센터 페낭 등 대표적인 의료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의료관광센터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페낭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의료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

○ 슬랑오르주, 쇼핑몰에서의 금요기도 허용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 총리실 종교 담당 장관이 쇼핑몰에서 이슬람 금요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해, 슬랑오르주는 반대 입장을 밝힘
- 쇼핑몰에서 금요기도를 허용할 경우 모스크를 주요 예배 장소로 육성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스크와 기도실의 예배 참석률도 감소할 수 있다며 금요기도는 매우 신성한 종교 의식인 만큼, 모든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상업·오락·여가 공간인 쇼핑몰보다 전용 모스크와 기도실에서 거행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
- 지난 4월 도심에서의 워터 뮤직 페스티벌 관련 논란과 같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업적이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제안에 대해, 이슬람 종교 논리에 기반한 완고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세계 의료관광 목적지 순위 6위 기록

-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말레이시아 세계 의료관광 목적지 순위 6위에 올랐으며, 그

성과를 폐낭이 리드하고 있다고 밝힘

- Travel and Tour World가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2026년 세계 10대 의료관광 목적지 순위는 ① 튀르키예 ② 태국 ③ 인도 ④ 멕시코 ⑤ 대한민국 ⑥ 말레이시아 ⑦ 코스타리카 ⑧ 싱가포르 ⑨ UAE ⑩ 콜롬비아 순임
- 말레이시아는 국제 인증 병원,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의료 인력, 잘 구축된 의료관광 생태계 등을 강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심장질환(심장내과), 암 치료(종양학), 난임 치료 등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 최신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수입은 2024년 27억2,000만 링깃에서 2025년 33억5,000만 링깃(약 1조 2,730억 원)으로 23.2% 증가했고, 의료관광객 수도 2024년 160만 명에서 2025년 185만 명으로 15.6% 증가하였으며, 폐낭이 말레이시아 전체 의료관광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최대 의료관광 목적지

○ 리야드항공, 리야드-쿠알라룸푸르 직항 취항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100% 소유한 항공사로 2023년 3월 출범한 리야드에어는 쿠알라룸푸르 - 리야드 직항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
- 첫 운항은 7월 30일로, 리야드 에어는 이 노선에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투입, 주 3회 운항할 예정(리야드 22:50 출발 쿠알라룸푸르 11:50 도착, 쿠알라룸푸르 16:45 출발 리야드 19:45 도착)
- 항공사는 이번 신규 노선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간 연결성을 강화해 비즈니스, 관광, 유학, 그리고 하지(Hajj) 성지순례를 포함한 종교 목적 여행 수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리야드항공은 2030년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이브이벤트 협회 등, 엔터테인먼트세 폐지 요구

- 예술·라이브이벤트·콘서트·페스티벌협회(ALIFE) 등 말레이시아의 엔터테인먼트·관광·창조산업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현행 엔터테인먼트세(Entertainment Tax)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단계적 폐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또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가 세율 인하, 면세 대상 확대, 지역별로 다른 세금 적용 기준의 통일 등의 과도기적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요구
- 이들은 엔터테인먼트세법이 1953년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오락이 사치품으로 여

겨졌던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세율이 최대 25%에 달한다며, 이는 결국 티켓 가격 상승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

- 엔터테인먼트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소비 증가와 방문객 확대, 기업 활동 활성화가 추가적인 소득, 일자리, 세수 증가를 여러 산업에 걸쳐 만들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세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
- 다만 ALIFE는 연방정부가 2028년까지 해외 라이브 공연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은 높이 평가하며, 이 정책이 이미 쿠알라룸푸르에서 라이브 공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평가

○ 에어아시아, 태국관광청과 MOU 체결

- 에어아시아는 에어아시아 그룹(AirAsia Group Bhd)과 태국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이 태국을 아시아 대표 관광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공동 홍보하기 위한 유효기간 3년의 MOU를 체결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발표
- 에어아시아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번 항공 협력은 관광 활성화, 역내 항공 연결성 강화, 그리고 더 많은 여행객들이 태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에어아시아 그룹은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와 타이 에어아시아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연결하는 주 123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직항 노선을 운영 중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수하물 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IA) 제1터미널에서 진행 중인 수하물 처리 시스템(BHS)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선 도착 승객이 이용하는 수하물 수취 컨베이어(캐러셀) 개선 공사가 진행되며, 현재 캐서셀 E에 가림막 설치 후 작업중이고, 2026.8.31. 캐러셀 F를 작업할 예정
- 두 단계의 공사는 모두 2027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다른 캐러셀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단계의 BHS 교체 사업이 이어질 계획으로, 운영사는 공항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

- 운영사는 성수기 수하물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 시 임시 수하물 수령 구역 4곳을 운영해 컨베이어에 수하물이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각 항공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하물 운영팀, 지상 조업팀, 고객 서비스팀을 현장에 배치해 승객들의 수하물 수령을 지원할 예정
- **신생 항공사 에어보르네오, 쿠칭-싱가포르 국제선 노선 개시 예정**
 - 동말레이시아 기반의 신생 항공사 에어보르네오가 7.20. 쿠알라룸푸르-쿠칭 국내선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하는 가운데, 7.13.부터는 7.22. 운항 개시하는 쿠칭-싱가포르 간 첫 국제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하며, 편도 이코노미석 가격은 399링깃(약 15만원)부터, 비즈니스석 가격은 871링깃(약 33만원)부터 시작
- **말레이시아항공, 프랑스 철도회사 협력 통해 항공+열차 통합 티켓 판매**
 - 말레이시아항공이 프랑스 철도 운영사인 SNCF Voyageurs와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과 프랑스 내 28개 도시를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하는 항공-철도(Air-Rail)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이번 제휴는 SNCF의 Train+Air 상품을 통해 제공되며, 말레이시아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편과 파리 이후 구간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하나의 예약으로 결합하여 단일 여정으로 예약 가능
 - 말레이시아항공은 SNCF가 운행하는 철도 서비스에 자사의 마케팅 코드를 부여하여 항공편과 철도 연결 구간을 하나의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 절차도 더욱 간편해짐
 - 이번 제휴를 통해 이용 가능한 프랑스 주요 도시는 리옹,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등임
- **페낭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 관광 효과 기대**
 - 할리우드 스타 마크 월버그가 넷플릭스 시리즈 'The Big Fix'의 촬영을 위해 말레이시아 페낭에 약 2주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낭 주 관광 및 창조경제위원회는 국제적인 도시 노출에 따른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제작은 말레이시아 영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페낭 주 관광 및 창조경제 집행위원회와 페낭시의회 승인을 받은 것임
- **말레이시아방문의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홍보 행사 실시**

- 말레이시아관광청은 말레이시아방문의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티모르에서 첫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함
- 7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MYEXPO Dili 2026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관광청은 데 시티네이션 세미나를 개최, 동티모르와 말레이시아의 여행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현재 말레이시아와 동티모르는 쿠알라룸푸르 - 딜리(Kuala Lumpur - Dili) 노선에 주 5회 직항편(바틱항공 3회, 에어로딜리 2회)이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청은 말레이시아와 동티모르를 잇는 직항 노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양국 간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

○ 관광협회, 정부의 관광 운송 사업자 대상 디젤유 보조금 지급 배제 비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유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광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이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이에 말레이시아 여행업협회(MATTA)는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 조치가 말레이시아 관광산업과 여행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MATTA는 허가를 받은 관광 운송차량은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민도 국내 여행객, 학교 단체, 기업 행사, 인센티브 관광, 종교 순례, 교육여행,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 이용한다고 강조하며, 이대로라면 말레이시아 국민의 교통요금이 인상될 것이며,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보조금이 폐지되면 관광 운송사업자의 운영비가 직접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요금 인상과 여행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말레이시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방문의해 캠페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 보르네오항공, 주정부가 고정비 부담하는 모델로 운영 계획 밝혀

- 사라왁주 총리는 사라왁이 말레이반도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주정부가 보르네오항공을 단순한 상업 항공사가 아니라 '항공 교량(air bridge)'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고정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상업적 운영을 통해 충당하는 새로운 모델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사라왁에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반도와 연결망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보르네오항공의 운영은 사라왁의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
 - 보르네오항공은 자카르타 노선을 2개월 내에 취항할 예정이며, 현재 싱가포르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 **인바운드관광협회, 3월에 제시한 투어 차량 가격 가이드라인 철회**
-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관광협회(Malaysian Inbound Tourism Association, MITA)는 지난 3.30. 관광버스와 관광밴의 최고요금을 발표하여 회원사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정부 경쟁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경쟁 제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 철회
 - MITA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한편, 회원사들에게 기 발표한 최고요금을 적용하거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2025년 캄보디아 의료관광객 12,000명 유치**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협회(MHTC)에 따르면 2025년 약 1만2,000명의 캄보디아 환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3,000만링깃(약 114억원)의 의료관광 수입이 발생함
 - MHTC는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이 크게 발전했으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문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회 'Malaysia Healthcare Expo(MHX)'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
-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52%는 쇼핑과 식음료에 집중**
- 투자회사 BIMB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외국인 관광객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약 52%가 쇼핑(36.1%)과 식음료(15.9%)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숙박(18.9%)에 사용하는 비중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소비 패턴은 관광객들이 점점 더 소비재 부문에 지출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 소매업체, 식음료(F&B)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사업의 수혜를 받을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
 - 다만 방문의해 사업의 수혜는 업계 전체가 아니라 우수한 자산과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시설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페낭주립박물관, 10년에 걸친 수리 후 재개관하며 첨단 기술 적용**

- 식민지 시대의 고건물(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지타운 역사도시 내 1등급 보호 건축물)에 자리하고 있는 페낭 주립박물관이 10년에 걸친 복원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하며, 기존 유물 전시와 함께 인터랙티브 디지털 전시 시설을 새롭게 갖추
- 페낭주 관광·창조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 복원에 1,800만 링깃(약 68억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려는 페낭주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함
- 위원회측은 관람객들이 인터랙티브 터치스크린, AI 기반 해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디지털 복원 기술, 몰입형 음향·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원본 유물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

○ **에어아시아, 쿠알라룸푸르-바레인-런던 연결 노선 취항 내년으로 연기**

- 에어아시아는 8.27. 취항 예정이던 쿠알라룸푸르-바레인-런던 노선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2027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
- 기 판매분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전액 환불받거나 730일(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도 환불 가능

[자료 출처 : 현지 주요 언론 종합]

- 비엠티, 베트남-말레이시아 노선 증편 및 할인 프로모션 실시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72322/vietjet-double-kuala-lumpur%E2%80%93ho-chi-minh-city-flights-july-2026>
- 에어아시아루브, 4개 항공사와 추가 파트너십 체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75732/airasia-move-expands-airline-network-four-new-partners>
- 말레이시아항공, 유가 상승 대응으로 항공권 가격 20~30% 올렸다 발표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75937/malaysia-airlines-raises-ticket-prices-20-30pct-amid-soaring-fuel-costs>
-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MH370 기체 수색 계약 연장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76398/government-extends-mh370-search-deal>
- 말레이시아-베트남, 관광 및 문화 분야 상호 협력 의지 밝혀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75215/malaysia-vietnam-boost-tourism-cooperation-focus-medical-and-halal>
- 바틱항공, 쿠알라룸푸르-시드니 직항 항공편 신규 개설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78628/batik-air-launches-sydney-direct-service-kl>
- 페낭주, 의료관광 유치 대상 시장 중동 확대 노력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7/1478275/penang-eyes-middle-east-market-after-rm11bil-medical-tourism-revenue>
- 슬랑오르주, 쇼핑몰에서의 금요기도 허용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83301/selangor-ruler-wont-consent-friday-prayers-shopping-malls>
- 말레이시아, 세계 의료관광 목적지 순위 6위 기록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82721/malaysia-ranked-worlds-6th-best-medical-tourism-destination-led-penang>
- 리야드항공, 리야드-쿠알라룸푸르 직항 취항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83427/riyadh-air-opens-ticket-sales-riyadh-kl-flights-july-30>
- 라이브이벤트 협회 등, 엔터테인먼트세 폐지 요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83849/alife-calls-abolition-entertainment-tax-boost-creative-economy>
<https://www.nst.com.my/lifestyle/groove/2026/07/1491434/showbiz-curtain-call-outdated-tax>
<https://theedgemalaysia.com/node/809412>
- 에어아시아, 태국관광청과 MOU 체결
<https://theedgemalaysia.com/node/810158>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수하물 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85080/klia-baggage-system-upgrade-enters-next-phase>
- 신생 항공사 에어보르네오, 쿠칭-싱가포르 국제선 노선 개시 예정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85928/airborneo-open-kuching-singapore-ticket-sales-fares-rm399-one>
- 말레이시아항공, 프랑스 철도회사 협력 통해 항공+열차 통합 티켓 판매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87578/malaysia-airlines-partners-frances-sncf-voyageurs-seamless-air>
- 페낭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 관광 효과 기대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88196/mark-wahlbergs-big-fix-brings-netflix-spotlight-penang>
- 말레이시아방문의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홍보 행사 실시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07/10/tourism-malaysia-launches-first-vm2026-outreach-in-timorleste-eyes-stronger-ties/227087>

- 관광협회, 정부의 관광 운송 사업자 대상 디젤유 보조금 지급 배제 비판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83477/matta-urges-review-diesel-subsidy-exclusion-tourism-transport-operators>

- 보르네오항공, 주정부가 고정비 부담하는 모델로 운영 계획 밝혀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93400/airborneos-state-backed-model-aims-keep-fares-affordable-says>

- 인바운드관광협회, 3월에 제시한 투어 차량 가격 가이드라인 철회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7/1493444/mita-withdraws-tour-bus-fare-announcement-after-mycc-probe>

- 말레이시아, 2025년 캄보디아 의료관광객 12,000명 유치

<https://www.nst.com.my/business/economy/2026/07/1494146/nearly-12000-cambodians-look-for-medical-care-malaysia-mhtc>

-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52%는 쇼핑과 식음료에 집중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94050/52pct-foreign-tourists-spending-goes-shopping-and-food>

- 페낭주립박물관, 10년에 걸친 수리 후 재개관하며 첨단 기술 적용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7/1495116/high-tech-upgrades-penang-state-museum>

- 에어아시아, 쿠알라룸푸르-바레인-런던 연결 노선 취항 내년으로 연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7/1496115/airasia-x-confirms-flight-kuala-lumpur-bahrain-london-gatwick>